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진해 홀몸어르신에 ‘동행꾸러미’ 나눔 “지역사회 상생”

2026. 5. 25.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22일 창원특례시 진해구청에서 '와우 동행꾸러미' 나눔활동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CFS, 지역 홀몸어르신에 생필품 지원하는 '와우 동행꾸러미' 나눔 3년째 전개
- 창원1·2·3·4센터 임직원 참여 80가구에 두유·라면·김 등 전달

2026. 05. 25.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임직원들이 3년째 지역 내 홀몸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나눔 활동을 펼쳤다.

CFS는 지난 22일 창원특례시 진해구 일대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80가구에 생필품이 담긴 '와우 동행꾸러미'를 전달했다. 와우 동행꾸러미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CF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나눔은 진해구청과 연계하여 기획되었으며, CFS 정책실 정한모 전무와 창원 1·2·3·4센터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어르신들이 평소 필요로 하는 두유, 라면, 김, 양념세트 등을 준비해 정성을 더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22일 진해 응동 일대 홀몸어르신의 집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CFS 임직원들은 조별로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가 동행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등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종근 진해구청장은 “가정의 달에 홀몸어르신을 위한 쿠팡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는 데 큰 위로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22일 창원특례시 진해구청에서 ‘와우 동행꾸러미’ 나눔활동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한모 CFS 정책실 전무는 “가정의 달에 창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한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FS는 ‘와우 더 소사이어티(Wow the Society)’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24년부터 전국적인 나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매년 5월에는 쿠팡 풀필먼트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홀몸어르신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